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6⟩

雖有才學 無戒行者 如寶所導而不起行
(수유재학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이불기행이요)
雖有勤行 無智慧者 欲往東方而向西行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욕왕동방이향서행이니라)
有智人 所行 蒸米作飯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無智人 所行 蒸沙作飯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共知喫食而慰飢腸 不知學法而改癡心
(공지끽식이위기장하되 부지학법이개치심이니라)
行智具備 如車二輪 自利利他 如鳥兩翼
(행지구비는 여차이륜이요 자리이타는 여조양익이니라)

비록 재능과 배움이 있어도 계행이 없는 이는 마치 보배 가득 쌓인 곳으로 이끌어도 일어나 따르지 않음과 같고 비록 부지런히 닦기는 하지만 지혜가 없는 이는 동쪽으로 가겠다면서 서쪽으로 나아감과 같다.

지혜로운 이 닦는 것은 쌀을 쪄서 밥짓는 것이요 슬기 없는 이의 닦음은 모래를 쪄서 밥짓는 격이다.

누구나 밥 먹어 주린 배 달랠 줄은 알지만 불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 모르니 계행과 지혜를 갖춤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이타의 소행은 마치 새가 양 날개로 나는 것과 같도다.

세간의 소란을 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오르는 데는 계율지킴이 좋은 사다리가 되니 그러므로 계행을 깨뜨리고 남의 복밭이 된다는 것은(귀의 받는 대상이 된다함은)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을 등에 업고 하늘을 나는 격이라 자기 죄업 녹이지 못하면 남의 죄업 녹여줄 수 없나니 계행없이 어찌 다른 이의 공양을 받으리요.

無行空身 養無利益 無常浮命 愛惜不保
(무행공신은 양무이익이요 무상부명은 애석불보니라)
望龍象德 能忍長苦 期獅子座 永背欲樂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고하고 기사자좌하야 영배욕락이니라)
行者心淨 諸天 共讚
(행자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道人 戀色 善神 捨離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四大 忽散 不保久住 今日夕矣 頗行朝哉
(사대가 홀산이라 불보구주니 금일석의라 파행조재인저)

수행없는 이 헛된 몸 길러봤자 이익될 게 없고 부평초 같이 덧없는 이 목숨 사랑하고 아껴보았자 보전치 못하리니 마음도리 투철히 깨친 선지식되길 바라거든 능히 수행의 고통을 잘 참고 부처님의 열반자리 기약하려거든 영원토록 욕락을 등지도록 할 것이니라.

계율은 진리의 세계 오르는 사다리

출가자의 富는 속인들의 웃음거리

수행자의 마음자리 청정하면 모든 천신이 칭찬하고 도 닦는 이로서 현상계·속계에 마음 기울면 여러 신들이 버리고 떠나느니라.

사대육신은 홀연히 흩어져 오래도록 보전치 못하나니 어느덧 금생도 저녁나절(황혼)이라 모름지기 아침(내생)이 다쳐오는 구나.

得粥祝願 不解其意 亦不檀越
(득죽축원하되 불해기의면 역부단월에)
應羞恥乎 得食唱唄 不達其趣
(응수치호며 득식창패하되 부달기취면)
亦不賢聖 應慚愧乎
(역불현성에 응참괴호아)
人惡尾蟲 不辨淨穢
(인오미충이 불변정예이듯)
聖憎沙門 不辨淨穢
(성증사문이 불변정예니라)

시주 받고 축원해주더라도 마음도리 밝히지 못하면 또한 시주 공양한 그 뜻에 어찌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공양 받고 염불 범패하지만 물아닌 근본 도리에 계합치 못하면 그 또한 성현에게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랴.

사람이 구더기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 가리지 못함을 미워하듯이 성현도 사문이 더러움(세속)과 깨끗함을 가리지 못하는 것 미워하느니라.

棄世間喧 乘空天上 戒爲善梯
(기세간훤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제니)
是故 破戒 爲他福田
(시고로 파계코 위타복전은)
如折翼鳥 負龜翔空
(여절익조가 부구상공이라)
自罪 未脫 他罪 不贖
(자죄를 미탈하면 타죄를 불속이라)
然 豈無戒行 受他供給
(연이나 기무계행하고 수타공급이리오)

世樂 後苦 何貪着哉 一忍 長樂 何不修哉
(세락이 후고어늘 하탐착재며 일인이 장락이어늘 하불수재리오)
道人貪 是行者羞恥 出家富 是君子所笑
(도인탐은 시행자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소소라)
遮言 不盡 貪着不已
(차언이 부진어늘 탐착불이하며)
第二無盡 不斷愛着
(제이무진어늘 부단애착하며)
此事無限 世事不捨 彼謀無際 絶心不起
(차사무한어늘 세사불사하며 피모무제어늘 절심불기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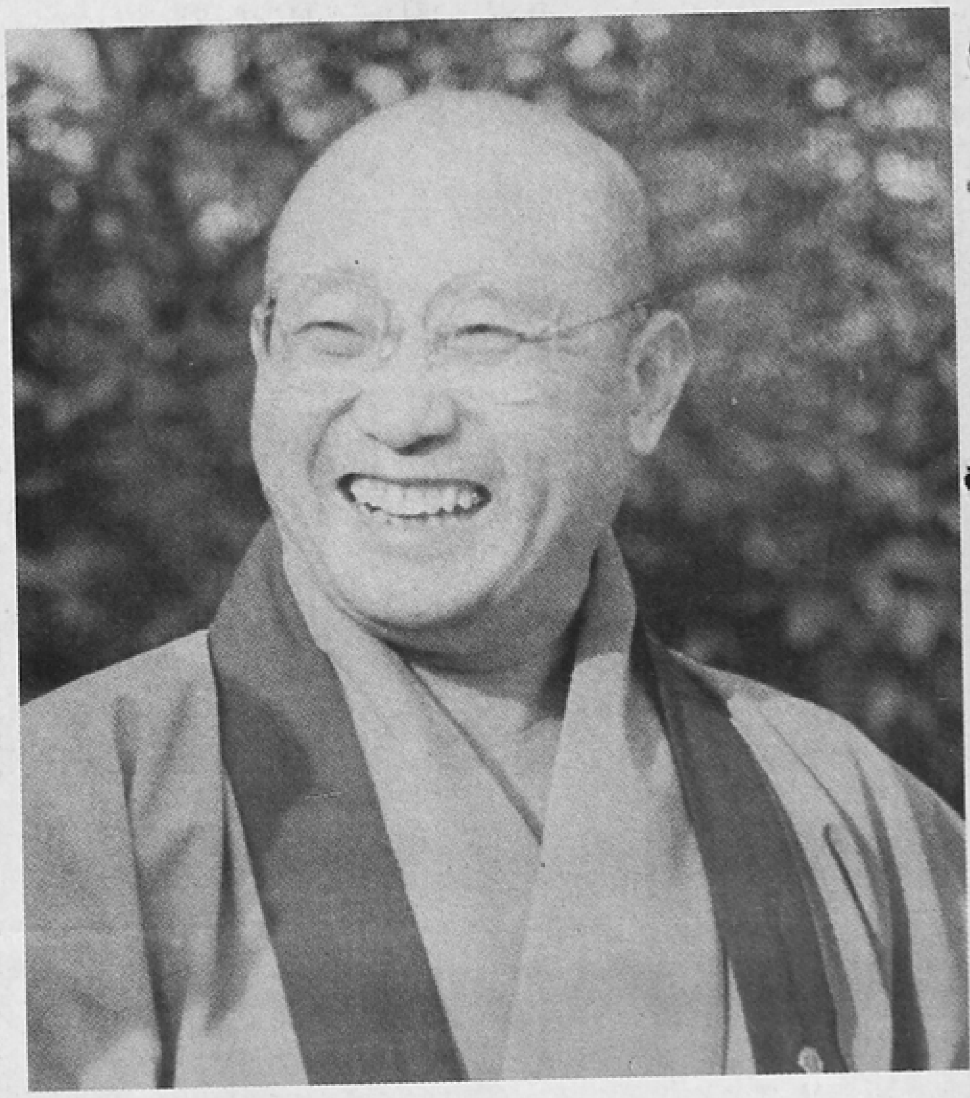
속세의 즐거움엔 나중에 고통이 따르거늘 어찌 탐착할 것이며 한번(욕망을) 참는 데 오래도록 즐거움 있거늘 어찌 닦지 않으리오 도 닦는 이의 탐심은 수행자의 큰 수치요 출가자의 부는 저 (세속)군자들의 웃음거리니라. (탐착·치부 등 계행어김에) 변명할 말은 끝이 없어도 탐하고 집착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이런 저런 구실을 달아) 요다음, 요다음 하고 (수행을) 미루기는 끝이 없어도 끝내는 애착을 끊지 않네. 이 같은 일 한이 없거늘 세속 일 버리지 못하여 저 같은 꾀 가이없거늘 끊을 마음 내지 않는도다.

龍眼

지상 법석

"원인 없는 결과 하나도 없어"

숭산 스님 <화계사 조실>



이 지구가 돌고있는 한 하나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나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 나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잘 가지며 내 가정을 어떻게 잘 지키며 또 내 나라는 어떻게 육성시키며 모든 인류가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를 볼 때에 여성이라는 그 힘이 올바른 정도를 잡을 때에 그 나라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여성이 타락되면 인간성이 상실되고 나라가 망해갔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보면 왕실 안에서 흐름을 조정한 것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방향을 바꾼 것도 여성이었으며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져오게 한 것도 여자입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힘이라는 것이 밖에 나타나는 힘보다도 안에서 조정하는 힘이라는 것이 굉장하다는 것이 역사상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역사속의 여성의 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만 되겠는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주부로서 어떻게 나 자신을 콘트롤하고 가정을 리드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 격동기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개의 진영으로 벌어졌습니다. 공산국가가 탄생된 것이 1617년입니다. 그 무렵 독재가 심했습니다.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 사회가 어떠한 주권자들에 의해서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유다, 평등이다 하는 것을 부르짖으며 1917년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백년도 못가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독이 서로 손을 맞잡고 통일을 이루었는가 하면 소련과 중공의 개방정책을 비롯하여 공산국가가 자멸하기 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소련에 종교인으로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정부가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인과 정치가·학자·예술인 등 각계 분야에 있는 3백명을 초청했습니다. 그 다음 소련내에 있는 각계각층 사람들, 특히 현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또 소련 내에 있는 권력을 가진 3백명과 같이 일주일 동안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환경과 인간의 방향'이었습니다.

기원전 1900년 전에 그때 우리 인구가 1억도 못되었습니다. 그것이 1750년도 그러니까 1700년 동안 10억이라는 인간이 태어났었습니다.

해방되던 1945년도에 20억이라는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무엇을 전할것인가

그러면 이 많은 인구가 얼마인가.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구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많은 인구를 하나님이 만든 것이냐, 부처님이 만든 것이냐,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팽창한다 할 것 같으면 2000년대에 가서는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50억인데 80억으로 늘어나면 인간은 설 땅이 없습니다. 인간폭발이 됩니다. 소련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150명과 미·영국 고등학교 학생 150명 등 30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때 고르바쵸프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해치고 공기와 물을 더럽게 만들고 이 세상에 모든 악행을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고, 모자를 해쓰고, 가

신축법당 건립을 위한 보은사 불사 권선문

귀의 삼보 하옵고···
날마다 좋은 나날되시길 부처님께 축원드립니다.
불교는 인연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로써,
여기에 보시공덕 인연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당이 낡고 협소하여 신축공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찰 예산으로는 많은 불자들이 마음껏 기도 정진하고,
심신을 연마할 수 있는 법당을 마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신축법당 건립불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佛事가 원만히 회향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불자들의 자비공덕이
사바세계에 오래 빛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8년 11월 일

주 지 박법홍
신도회장 서정식
부회장 김연화정 합장
총 무 이성도화
거사림회
명예회장 김태달
회 장 홍인학 합장

불사동참구좌
대동은행 : 353-02-011549
대구은행 : 062-07-114341-000
예금주 : 박철홍

※ 자세한 문의는 사찰에 연락바랍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보은사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 4동 1201-3 ☎ (053)941-9164, 953-6704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7대성지 순례)
인도 네팔 11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13일, 1월 27일 동참금 : 165만원
● 일 정 : 서울–델리(1박)–러나우–발람푸르(1박)–바라나시(1박)–보드가야(1박)–라지기르, 나란다–파트나(1박)–바이샬리, 쿠시나가르(1박)–룸비니(1박)–카트만두(1박)–싱가폴 경유–서울
● 특 전 : 전문요리사 동행 **한국 음식 제공**, 불교성지순례 **전문가이드**.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캔디 불치사)
스리랑카 6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6일, 1월 20일 동참금 : 108만원
● 일 정 : 서울–콜롬보(1박)–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1박)–폴론나루와, 시기리야–하바라나(1박)–덤불라, 아루비하르–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태국 8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27일, 2월 10일 동참금 : 14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 불광사, 화련
대만 5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13일, 2월 3일 동참금 : 68만원
● 일 정 : 서울–타이페이(1박)–고웅(1박)–화련(1박)–타이페이(1박)–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 5일
● 출 발 : 12월 11일, 1월 22일, 2월 12일 동참금 : 85만원
● 일 정 : 서울–덴파사(2박)–족자카르타(1박)–자카르타(기내박)–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헤초 여행사
국외 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대표전화 (02) 544-1533

■ 여행조건
· 특급 또는 1급 호텔(2인 1실 기준)
· 전 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 최소 출발 인원 : 10명